

“전역을 신고합니다” 돌아온 호랑이들



경찰야구단에서 제대한 KIA 김명찬(왼쪽부터), 김호령, 이진영, 고장혁이 13일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전역 인사를 했다.



KIA타이거즈 양현종이 두산베어스와 홈경기가 열린 13일 ‘물당반’을 하고 있다.



고장혁·김명찬·김호령·이진영 전역 신고
내·외야·마운드 젊은피 수혈로 운용의 폭 확대
내부 경쟁 재점화...다음주 1군 등록 결정

‘충성! 전역을 신고합니다.’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 ‘충성’ 소리가 울려퍼졌다.
경찰 야구단에서 군복무를 해왔던 KIA 타이거즈 내야수 고장혁, 투수 김명찬, 외야수 김호령과 이진영이 지난 12일 전역을 하고 이튿날 팀에 합류했다.
합명에서 첫 훈련을 진행한 이들은 오후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박흥식 감독대행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에게 인사를 하고 선수들과 재회했다.
아직 ‘가을 잔치’의 꿈이 남아있는 만큼 새로운 전력의 가세는 KIA 입장에서 반갑다.
박 감독대행은 이날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제대한 선수들 몸 상태 등을 체크해보라고 했다”며 “그동안 경기가 없었던 만큼 주말에 두 경기를 하게 할 생각이다.”
실전 점검 후 김호령, 김명찬, 고장혁의 경우 다

음 주 등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비역’들의 복귀로 전력 운용의 폭이 넓어졌고, 내부 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올 시즌 KIA 외야에는 이창진이라는 새로운 선수가 등장했다. 처음 중견수 자리를 맡았지만 재치 있는 수비와 함께 타격에서도 쓸쓸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김호령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이다. 역시 김호령의 최고 장점은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수비 실력이다.
김호령도 “수비는 자신 있다”며 수비로 일단 어필할 생각이다.
김호령은 “내 편한 폼이 뭘까 고민했고, 찾을 때 잘 칠 수 있는 것을 계속 연구했다. 힘도 좋아졌다”며 “새로 시작하는데 그냥 똑같이 하던 대로 하겠다. 잘하면 올라가는 거고 못하면 못 올라가는 거니까 부담 없이 하겠다. 좋은 경쟁해서 잘하는 사람이 뛰는 것이다”고 새로운 경쟁을 시작한 소감을

언급했다.
빠른 발과 다양한 포지션 소화 능력이 장점인 고장혁도 공격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왔다.
고장혁은 “제대해서 좋은 것도 있는데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살짝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며 “어떻게 하면 잘할지 생각 많이 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아무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신경 많이 썼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시도도 많이 해왔다. 수비는 자신감이 있다. 수비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김명찬은 친구 박준표와 문경찬이 버티고 있는 마운드에 좌완 라인을 구성하게 된다.
“어제 잠이 잘 안 왔다. 아침에 눈 뻘뻘했다”며 웃은 김명찬은 “제구에 제일 신경 많이 썼고 자신감을 많이 쌓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잘하고 있어서 친구로서 기분이 좋기도 했다. 같이 빨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일단 아프지 않고 하면 될 것 같다. 애들이 (실력)는 만큼 나도 많이 늘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고졸 4년 이진영은 빠른 발과 함께 강한 어깨가 장점인 외야 기대주이다.
/글:사진=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아이스박스 배달 양현종 “수고하셨습니다” 하준영 “고생해라”...폭소만발 ‘야자타임’

덕아웃 T 특독

KIA타이거즈 양현종이 ‘막내딸’로 돌아왔다. 두산베어스와 홈경기가 열린 13일, KIA ‘에이스’ 양현종에게 이목이 쏠렸다.
양현종은 이날 훈련이 끝난 뒤 물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챙겨 들고 덕아웃으로 이동을 했다. ‘물당반’은 투수조 막내에게 주어지는 역할이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양현종이 아이스박스 안에 담긴 물병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는 사이 고졸 2년 차 하준영은 대신 배의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격려를 했다.
양현종은 뒤늦게 훈련을 마치고 들어온 고졸 4년 차 후배 전성현에게는 “수고하셨습니다”라며 선수들과 코치들을 웃게 한 이 장면은 3연승 덕분에 연출됐다.

하준영은 “팀이 3연승을 하면 ‘야자타임’을 갖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3연승을 했다. 오늘 투수들끼리 자리가 바뀌었다”고 웃었다.
약속된 ‘야자 타임’이 성사되면서 팀의 에이스이자 투수 최고참인 양현종이 ‘막내’가 됐다.
오랜 시간 투수조 막내로 자리를 하면서 ‘막내딸’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았던 양현종은 이날 능숙하게 물병을 정리하면서 박수를 받았다.
하준영은 후배 김기훈이 이날 선발 등판을 하는 라 자리에 없었던 덕분에 투수조 최고참이 되어 하루를 보냈다. 야자 타임은 ‘경기 시작 전’까지였다.
가장 늦게 훈련을 끝낸 임기영은 ‘현종이 형 봤냐’며 웃은 뒤 “(라커룸)안에서도 잘해야 한다”고 후배가 된 양현종을 찾으려 했다.
지난 11일 아쉬운 역전패로 팀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는 상황에서 투수들은 유쾌한 장난을 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기분 좋게 열었다.
/글:사진=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사그라든 야구 열기

관중 전년비 8% 줄어든 618만여명...4년만에 700만명 대 전망

프로야구 관중이 4년 만에 700만명 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13일 “올 시즌 관중이 800만명을 넘기는 사실상 힘들다”라며 “2년 연속 관중이 감소했는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새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2019 KBO리그는 전반기 전체 일정의 75%인 542경기를 치른 결과 569만6913명이 입장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617만7475명보다 8% 감소한

수치다.
KBO 사무국은 현재 추세라면 올 시즌 관중이 지난해(807만3742명)보다 50만~60만명가량 줄어든 750만~760만명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10개 구단이 목표치로 내세웠던 878만명보다는 100만명 이상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구단별로는 올 시즌 새 구장인 창원 NC파크를 건립한 NC 다이노스만 59% 증가했을 뿐 나머지 9개 구단의 관중이 일제히 감소했다. /연합뉴스

타오르는 K리그 인기

1부리그 누적관중 지난해 총 관중 근접...2부리그 74.4% 증가

무더운 날씨에도 프로축구 K리그의 관중몰이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주간브리핑에서 “70%가량 진행된 이번 시즌 누적 관중이 이미 지난 시즌 총관중 중에 근접했다”며 “K리그1, 2 모두 다음 라운드에서 작년 총관중 수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다.
연맹 자료에 따르면 하나원큐 K리그1(1부리그) 2019 25라운드까지의 누적관중은 120만 7597명으로 지난해 38라운드까지 총 관중인 124만 1320명에 근접했다. /연합뉴스

26라운드 6경기에서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관중인 8051명이 들어오면 누적 관중 수는 지난 시즌 총관중 수를 돌파한다.
지난 시즌 같은 시점의 경기당 평균 관중은 5265명이었다. 올해 평균 관중은 지난해보다 52.9% 증가했다.
K리그2(2부리그) 흥행도 이어지고 있다.
23라운드가 끝난 현재 K리그2 누적 관중은 30만 4953명이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2652명으로 지난해 동기(1521명) 대비 74.4% 늘었다. /연합뉴스



MLB 관심은 온통 ‘류현진 방어율’

MLB 닷컴, 후반기 기록 전망...“역사적 영역 근접” 평가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평균자책점은 이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관계자와 언론, 팬들의 시선을 하나로 모으는 중대한 기록이 됐다.
MLB닷컴은 13일(한국시간) 후반기에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11개 역사적인 기록을 예상했다.
그중 하나가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이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마운드의 높이가 낮은 1969년 이래 가장 낮은 시즌 평균자책점에 도전한다고 소개했다.
류현진은 지난 1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투구로 시즌 12승과 한미통산 150승을 동시에 수확하고 평균자책점을 1.45로 끌어내렸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최근 17차례 선발 등판에서 15번이나 1자책점 이하로 던졌으며 그가 역사적인 영역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1985년 뉴욕 메츠의 드와이트 구든(1.53)을 넘어 류현진이 1969년 이래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가운데 가장 낮은 평균자책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의 반발력이 높아진 1920년 이래 메이저리그는 ‘라이브 볼 시대’에 접어들었

다.
자연스럽게 타자들은 예전보다 활발한 공격을 펼쳤다.
1968년 밥 김슨(당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라이브 볼 시대 최저 평균자책점인 1.12를 남겼다.
라이브볼 시대에 평균자책점 1.50 이하로 시즌을 마친 유일한 투수다.
그해 김슨을 포함해 7명의 평균자책점 1점대 투수가 탄생하는 등 투고타저가 득세하자 메이저리그는 이듬해인 1969년부터 마운드 높이를 종전 최대 15인치(약 38cm)에서 10인치(25.4cm)로 낮춰 공수 균형을 꾀했다.
류현진이 앞으로 남은 8번 정도의 등판에서 지금의 평균자책점을 유지하거나 이를 더욱 떨어뜨린다면 1969년 이래 최저 평균자책점 신기록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밖에 크리스천 엘리치(밀워키 브루어스)의 사상 첫 50홈런-30도루 도전,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애들랜트 브레이브스)의 40홈런-40도루 달성, 게릿 폴(휴스턴)과 크리스 셰일(보스턴 레드삭스), 맥 셔저(워싱턴 내셔널스)가 벌이는 역대급 탈삼진을 경쟁 등도 기대를 품게 하는 기록으로 거론됐다. /연합뉴스